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손 현 숙
영남이공대학 사회복지·보육과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s and Self-Concept on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Son, Hyun Sook
Dept. of Social Welfare · Child Car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aeg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affe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mothers and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concep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96 juniors from regular high school in the city of Daegu, who included 243 boys and 253 girls. The measurements of this study were a career-maturity inventory,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 and self-concept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maturity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o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mothers for them. Second, as for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concept on career maturity, three variables, including competence self-concept, home self-concept, attitudinal independence from mothers, classroom self-concept, had significantly explanation of career maturity. Third, as a result of making a path analysis of the impa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s on career maturity through the medium of self-concept, conflictual independence gave a direct impact only, and its indirect effect was insignificant. The attitudinal independence showed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for mothers had a significantly indirect impact only.

Key words: psychological separation, self-concept, career maturity.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직업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세분

화되며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으로 인해 진로 및 직업선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이 연구실적물은 2008학년도 영남이공대학 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일: 2008년 12월 31일 채택일: 2009년 6월 10일

Corresponding Author: Son, Hyun Sook Tel: 82-53-650-9362 Fax: 82-53-625-4704

e-mail: hson@ync.ac.kr

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에 있다. 청년기는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 확대된 교우관계, 이성문제, 가치관문제, 진로문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로 고민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미래를 위한 방향설정과 다양한 역할을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Super(1957)는 진로성숙을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의 핵심개념으로 보았으며, 진로성숙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로교육에 필수적이며,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외적요인 즉 심리·사회적 제 요인의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였다(강경찬 1997). Super가 처음으로 진로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거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자아개념, 지능, 내외통제성, 학업능력, 직업가치, 의사결정양식, 성, 나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강경찬 1997; 강종구 1986; 김현옥 1989; 이기학 1997; Luzzo 1993)등이다. 그러나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인을 조사했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이 가족변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연구된 또 하나의 가족 변인은 부모의 영향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신미자 2002; 이광자 1998; Hollander & Krupsaw 1986)는 진로성숙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김정애(1998)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은 고등학생과,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은 낮은 고등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권용호(2002)도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관련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있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란 청소년들의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Hoffman 1984)을 의미한다(이희영 1999).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과제이며(Erikson 1968; Havighurst 1952), 청소년들의 향후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성취는 긍정적이면서도 친밀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진로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덧붙여,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손병환 2000)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모든 측면에 대한 시각으로, 조직된 '나'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어떤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태도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형성은 자신의 잠재력과 특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하여, 청소년기에는 미래의 정체감형성과 진로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기학 1997). 특히 직업 또는 진로발달은 성격발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로성숙 이론에서 자아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Super(1969)는 인간의 진로발달은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성숙은 자아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자아개념을 직업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건전한 자아형성과 심리적인 독립이 형성되게 되며,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더욱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가정 분위기로 부부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영향력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므로(유영주 2001) 이로 인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성숙을 도와주는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을 이루게 하는 주요 예언인자로 보는 측면이 부각되고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을 매개(mediator)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경로모형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과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자아개념을 매개(mediator)로 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에 대한 독립변수인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어머니에 대한 독립변수인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을 매개로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의존해 왔던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과업 성취와 적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분리-개별

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란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Mahler(1963)가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기술한 이후 Pine과 Bergman(1975)에 의해 보다 정교화 되었다. Mahler 등은 이 연구에서 생후 3세까지 진행되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관찰을 통해 유아가 어머니와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지각하고, 점진적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Blos(1979)는 청년기 동안에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청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자아 발달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과정은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재화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부모로부터의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하는 것을 청소년의 주된 과업으로 보았으며, 첫 번째 및 두 번째 분리-개별화의 성공적인 성취를 통해 청소년들은 명료하고 안정된 정체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Josselson(1988)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 내적인 과정으로 자아와 타인을 구별하는 경계개념의 발달과 자아의식의 증대, 나아가 부모에 대한 유아기적 내적 표상의 인지적 재조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맹영임 2002).

특히 Hoffman(1984)은 Mahler와 Blos 등의 정신분석적 개념을 바탕으로 청년기의 심리적 분리의 개념을 구체화시켰는데, 그는 분리-개별화 과정은 다중 차원적인 구인이며, 각각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자기보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독립과 정체감 획득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제라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기 시작한 것은 Hoffman(1984)이 측정도구(PSI)를 개발한 이후였다.

Blustein 등(1991)은 심리적 독립이 남·여 대학생의 진로성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애착은 진로수행에 있어 진전을 가져왔으며, 폐쇄경향성에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순정(2000)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전체적인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심리적 독립수준의 점수가 높아졌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심리적 독립수준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 측정도구(PSI)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적응의 관계(배제현 1994; 이준엽 1995; 정은희 1993)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김은진 2001; 박수길 2001; 정정숙 1994), 진로발달과의 관계(권용호 2002; 김순정 2000; 맹영임 2002)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라는 단어는 일상대화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자아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간에 합의된 정의가 도출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Rogers(1951)는 자아와 자아개념 또는 자아구조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이 느껴서 알 수 있는 자기에 관계되는 모든 지각의 조직체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자기의 특징, 능력에 대한 지각, 타인 또는 환경과 관계를 지니는 자아의 지각이나 의미, 대상과 경험에 연합된 것으로 지각된 가치와 태도, 그리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목표와 이상 등의 요소로서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Byrne(1974)역시 Rogers와 유사하게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행동, 능력, 신체 및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치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판단 및 가치의 집합체로서 성격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결국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모든 측면에 대한 지각으로, 조직된 '나'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어떤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태도의 복합체를 의미한다(손병환·박경자 2000). 자아를 기술하는 용어들이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자아, 자기, 자아의식, 자아정체, 자기이해, 자아상, 자기 존중감, 현상적 자아 등은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송인섭 1998).

한편, 송인섭(198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을 개인이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보고 Shavelson(1976)의 다원적, 위계적인 자아개념 구조에 바탕을 두어 두 번째 차원인 비학문적 자아개념을 두 개의 잠재적 차원으로 분류해서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아개념을 각각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다양한 구인을 가진 상호 관련된 다원적·위계적인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일반적인 자아개념은 위계적인 구조 모형의 가장 높은 차원에 위치하고 두 번째 차원은 학문적 자아개념과 중요 타인에 대한 자아개념 그리고 정의적 자아개념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다시 더 낮고 특수한 구인들을 포함한다.

3. 진로성숙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1960년대의 진로발달이론가들로 이어지면서 확립된 개념이다(김현옥 1989). Super(1957)는 진로발달이론에 입각하여 '진로성숙이란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뜻한다고 정의하면서,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 선택하고자하는 직업의 일관성, 자기특성의 구체적 이해 그리고 진로 문제에 있어서의 지혜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했다(강경찬 1997). 그 후 Crites(1961, 1971)는 Super(1957)의 직업성숙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성숙의 개념을 수정하여, 진로성숙이란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직업행동이 같은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행동과 얼마나 유사

한가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Crites(1961)의 연구는 Super의 성향, 직업정보, 계획, 현명성의 영역을 진로성숙의 모형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Super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Super가 직업선택의 결과를 중시한데 반해 Crites(1961)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장석민(1990)은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동일한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성숙은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 직업적성과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이 생겨난 결과로 보았으며(김충기 1983), 진로성숙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면서 다음발달단계로 옮겨나가기 위한 준비를 정도로 개념하고 있다.

진로성숙에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는 김현옥(1989)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이 빠르며,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인 성격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분석하면, 성격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사람은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의 문제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임하며, 사회적 자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의 문제에서도 외부조건과 잘 타협하여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심리적 독립 및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에 관한 직접적 관련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애(1998)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은 고등학생과,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은 낮은 고등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남자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권용호(2002)도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찬주(1993)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되어 있을수록 진로결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김순정(200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맹영임(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과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갈등적 독립이 우리나라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적 적응이나 자아정체감 및 진로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이희영(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적 독립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진로발달에 있어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차원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적성, 신체적 능력,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할수행의 결과로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의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런 자아개념의 발달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발달되는 것이다(정순이 1989).

Ginzberg(1951)는 직업선택 및 결정과정에 가치관 및 생활양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Super(1957)도 직업발달을 자아개념의 발달과 함께 성숙되며, 직업에 대한 흥미·흥미·능력·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인과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Super(1974)는 직업성숙 또는 진로성숙이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의 핵심이며, 진로성숙수준(進路成熟水準)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Super의 자아실행이론이 대두된 이래 진로성숙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Gati & Krausz & Osipow 1996; Oppenheimer 1966; Taylor & Betz 1983)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이기학 1997).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3, 고교 1, 2,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간의 상관을 연구한 김현옥(1989)은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수준이 높으며, 진로성숙과 총자아긍정과의 상관이 자아개념의 하위변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나 자아개념의 하위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진로성숙과의 상관이 더 높아짐을 시사했다. 또한 자아개념의 하위변인 중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격적 자아이고,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적 자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원중(1984), 강종구(1986),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도 자아개념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자아개념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업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승일(1987)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자아, 사회적 자아 및 성격적 자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신체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3년부터 1995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학위논문 150여편 중 최종 53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송현순과 정성봉(1998)의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변인과 사회적 배경변인 중 자아관련 특성이 진로성숙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지능, 학업성취도, 학년차, 지역차, 성별, 가정환경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을 예언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여줌으로써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의 남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9개 고등학교 15개반을 임의 표집하여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표집된 학교는 남녀 고등학교를 고루 선정하기 위해 남학교 4곳과 여학교 5곳을 선정하였으며, 2학년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고2의 경우 고3에 비해 수능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이 낮아 설문에 성실히 임해주며, 진로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시기라 주로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설문지의 누락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530명이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해 주었으며, 이들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자료와 어머니가 안 계신 자료 34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43명(49%)과 여학생 253명(51%), 총 496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포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age according to variables

		(N=496)	
Variables	Contents	Total	Percentage (%)
Sex	Male	243	49.0
	Female	253	51.0
Department	Human Science	227	45.8
	Natural Science	269	54.2
Father's Education	Primary School	13	2.6
	Middle School	33	6.7
	High School	328	66.1
	College	122	24.6
Mother's Education	Primary School	18	3.6
	Middle School	64	12.9
	High School	357	72.0
Month family income (Unit: ₩1,000)	College	57	11.5
	<1000	9	1.8
	1,000 - 1,999	163	32.9
	2,000 - 2,999	196	39.5
	3,000 - 4,000	94	19.0
	≥4,000	34	6.8

2. 측정 도구

1) 진로성숙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 측정 도구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진로성숙 측정도구는 5개 하위 영역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성 차원(Decisiveness, 10문항), 준비성 차원(Preparation, 10문항), 독립성 차원(Independence, 9문항), 목적성 차원(Goal Orientation, 8문항), 확신성 차원(Confidence,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 차원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둘째, 준비성 차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정도, 그

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독립성 차원으로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넷째, 목적성 차원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신성 차원은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지니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에서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고등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정은희(1993)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변안한 112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정도를 측정하는 5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측정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5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13문항),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13문항),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10문항),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 중 첫째,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이 없어도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일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둘째 정서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정, 사랑,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불만, 불신, 화남, 억제, 책임감,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태도적 독립은 부모와는 구별된 존재로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 태도를 갖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자아개념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인섭(1982)이 제작한 자아개념 척도를 기초로 하여 양용운(1998)이 재편성한 64문항의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 척도는 8개의 하위영역인 총 64문항이며, 일반적 자아개념(General self concept, 9문항), 학급 자아개념(Classroom self concept, 8문항), 능력 자아개념(Ability self concept, 8문항), 성취 자아개념(Achievement self concept, 7문항), 사회 자아개념(Social self concept, 10문항), 가족 자아개념(Family self concept, 9문항), 정서 자아개념(Emotional self concept, 8문항), 신체 자아개념(Physical self concept,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자아개념은 자아개념의 모형에서 하위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학문적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등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조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척도, 자아개념 척도, 진로성숙 척도와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표집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뒤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40

분이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Ver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먼저 빈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일반적인 분포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과 진로태도 성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을 매개로 해서 진로성숙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모와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개념과 진로성숙간의 상관관계를 Table 2에서 살펴보았다.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심리적 독립의 설명량은 총 28.3%정도였다.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심리적 독립의 설명량은 총 6.9%정도였다. 심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of mother,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Variable	Factor of career maturity					
	Preparation	Confidence	Decisiveness	Independence	Goal Orientation	Career Maturity
Conflictual independence	.06	.26***	.14**	.05	.12**	.21***
Functional independence	-.19***	-.12**	-.13**	.25***	.68***	-.07
Emotional independence	-.29***	-.06	-.09*	.23***	.56***	-.06
Attitudinal independence	-.20***	-.16***	-.07	.18***	.54***	-.07
Total	-.22***	.02	-.03	.28**	.75***	.05
Classroom self concept	.27***	.34***	.15**	.08	-.07	.27***
Ability self concept	.35***	.49***	.27***	.15**	-.04	.41***
Social self concept	.26***	.27***	.07	.16***	-.12**	.23***
Emotional self concept	.27***	.28***	.22***	.06	-.30***	.29***
Family self concept	.26***	.43***	.17***	.11*	-.16**	.30***
Physical self concept	.15**	.38***	.08	.07	-.09	.20***
General self concept	.39**	.51***	.24***	.15**	-.18***	.42***

*p < .05 **p < .01 ***p < .001

Table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Dependent Variable	Moderator variable	R ²	R ² change	F	β	t
Self Concept	Psychological separation	.283	.012	8.53**	-.14	-2.92
career maturity	Psychological separation	.069	.009	4.75**	.12	2.18

*p < .05 **p < .01 ***p < .001

리적 독립이 0.9%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자아개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성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

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에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은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으로 설명량은 총 20.4%였다. 이 중에 능력자아개념이 16.5%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가족자아개념이 3.1%정도를, 학급자아개념이 0.8%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성숙에는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능력자아개념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Variable	R ²	R ² change	F	β	t
Ability self concept	.165	.165	97.49***	.32	7.19
Family self concept	.196	.031	18.99***	.17	3.84
Classroom self concept	.204	.008	4.91*	.10	2.22

*p < .05 **p < .01 ***p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mother on career maturity

Variable	R ²	R ² change	F	β	t
Ability self concept	.165	.165	97.48***	.33	7.51
Family self concept	.196	.031	18.99***	.13	2.13
Attitudinal independence	.207	.011	6.74*	.17	3.39
Classroom self concept	.216	.009	5.60*	.10	2.26

*p < .05 **p < .01 ***p < .001

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수업 및 학교생활이 긍정적일수록 진로태도가 성숙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에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 학급자아개념으로 설명량은 총 22.4%였다. 이 중에 능력자아개념이 16.5%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가족자아개념이 3.1%정도를, 태도적 독립이 1.9%정도를, 학급자아개념이 0.9%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능력자아개념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진로성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태도적 독립, 학급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에 있어서 더욱 성숙된 태도를 갖게 됨을 시사한다.

4)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진로에 대한 결정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어머니에 대한 변인은 없으며,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은 능력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이었다. 이들 2개 요인의 설명량은 총 9.2%정도였으며, 이 중에 능력자아개념이 7.1%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가족자아개념이 2.1%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능력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준비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어머니에 대한 변인은 정서적 독립이었으며,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은 능력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이었다. 이들 3개 변인의 설명량은 총 20.7%정도였으며, 이 중에 능력자아개념이 11.9%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정서적 독립이 부정적으로 6.8%정도를, 사회적 자아개념 2.0%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능력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은 높을수록, 정서적 독립은 낮을수록 진로 준비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독립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어머니에 대한 변인은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태도적 독립이었으며, 자아개념의 요인은 사회적 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이었다. 이들 6개 변인의 설명량은 총 15.4%정도였으며, 이 중에 기능적 독립이 6.2%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자아개념이 3.8%정도를, 가족자아개념이 2.0%정도를, 정서적 독립이 1.5%정도를, 능력자아개념이 0.8%정도를, 태도적 독립이 1.1%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능적 독립, 사회적 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서적 독립, 능력자아개념,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 독립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목적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Table 6. Multiple regression for psychological separation of mother and self-concept on career maturity's sub-factor

Dependent variable	Moderator variable	R ²	R ² change	F	β	t
Deci-siveness	Ability self concept	.071	.071	37.77***	.22	4.99
	Family self concept	.092	.021	11.14**	.15	3.34
Pre-paration	Ability self concept	.119	.119	66.53***	.29	6.94
	Emotional independence	.187	.068	41.59***	-.24	-6.01
	Social self concept	.207	.020	12.47***	.15	3.53
Inde-pendence	Functional independence	.062	.062	32.73***	.17	2.50
	Social self concept	.100	.038	20.63***	.14	3.22
	Family self concept	.120	.020	11.38**	.20	3.78
	Emotional independence	.135	.015	8.31*	.16	2.54
	Ability self concept	.143	.008	4.85*	.11	2.45
	Attitudinal independence	.154	.011	5.93*	.14	2.44
	Goal Orientation	Functional independence	.467	.467	432.54***	.45
	Conflictual independence	.528	.061	63.28***	.36	10.59
	Attitudinal independence	.576	.048	55.93***	.26	6.68
	Emotional independence	.586	.010	11.33**	.13	2.91
	Family self concept	.592	.006	6.94*	-.10	-2.63
Confidence	Ability self concept	.241	.241	157.03***	.34	8.02
	Emotional self concept	.294	.053	37.33***	.15	3.01
	Conflictual independence	.314	.020	14.30***	.16	4.16
	Phisical self concept	.329	.015	10.61**	.15	3.26

*p < .05 **p < .01 ***p < .001

어머니에 대한 변인은 기능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가족자아개념이었다. 이들 5개 변인의 설명량은 총 59.2% 정도였으며, 이 중에 기능적 독립이 46.7% 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갈등적 독립이 6.1% 정도를, 태도적 독립이 4.8% 정도를, 정서적 독립이 1.0% 정도를 가족자아개념이 부적으로 0.6%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능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이 높을수록, 가족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진로 목적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확신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어머니에 대한 변인은 갈등적 독립이었으며, 자아개념의 요인은 능력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이었다.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량은 총 32.9% 정도였으며, 이 중에 능력자아개념이 24.1% 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정서적 자아개념

이 5.3% 정도를, 갈등적 독립이 2.0% 정도를, 신체적 자아개념이 1.5%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능력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갈등적 독립,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 확신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신에 대한 높은 긍정적 자아감은 진로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진로 목적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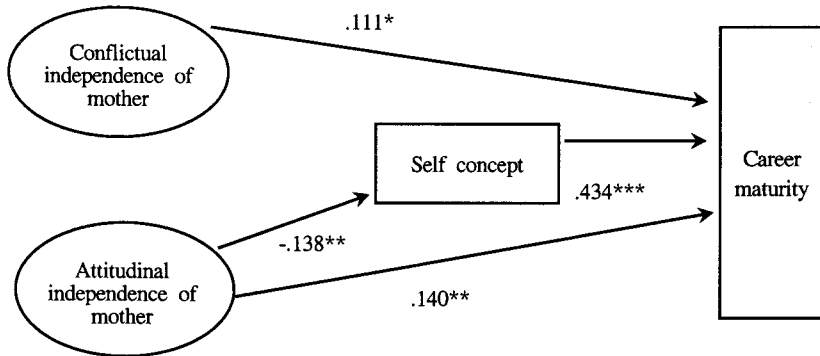


Fig. 1. Path Analysis of the impa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s on career maturity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절차는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어머니에 대한 독립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을 가지고 경로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beta=.111, p<.05$)을 미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은 진로성숙에 직접적 영향($\beta=.140, p<.01$)과 자아개념($\beta=-.138, p<.01$)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자아개념,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 순이었으며, 간접효과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이었다. 전체효과는 자아개념,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 순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개념이며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7. Causation effect of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Variable	Career maturity		
	directly effect	indirectly effect	total effect
Conflictual independence	.111	-	.111
Attitudinal independence	.140	-.060	.080
Self Concept	.434	-	.434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강조되어 왔으며, 진로상담 영역에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은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

립과 자아개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의 설명변량은 6.8%로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이 0.8%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인 신념과 가치 및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심리적 독립이 보다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둘째,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변량은 20.4%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능력자아개념이 16.5%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추가로 가족자아개념이 3.1%를, 학급자아개념이 0.8%를 설명하였다. 즉,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일수록, 수업 및 학교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진로발달은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성숙은 자아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Super (1969)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해서 지지된다. 또한 학문적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곽준규와 구만호(2000), 학업적 자아가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 미친다고 보고한 권혁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격적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현옥(1989), 도덕적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나승일(198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자아개념 척도의 차이와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심

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개념이 2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량이 높았고 여기에 추가로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이 1.9%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배경, 사회·심리, 개인특성 요인 중 자아개념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강경찬(1997)과, 국내에서 발표된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학위논문은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변인과 사회적 배경변인 중 자아관련 특성이 진로성숙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송현순과 정성봉(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변인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설명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고등학생들의 경로 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은 직접적인 효과만 있고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은 직접적, 간접적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설명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정서적으로 친밀하여 심리적으로 독립적일 경우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기표상을 갖게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외부의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진로에 있어 성숙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개념이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높여주어 간접적

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연구와 실제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변인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효과적인 진로태도 성숙을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들이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구시에 소재한 고등학생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 상에서 왜곡되었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찬(1997)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계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종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준규·구만호(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 12 No. 1. 101-124.

권혁본(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용호(2002) 실업계 고교생의 심리적 독립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정(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선(1989).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애(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옥(1997) 고등학교 직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VOL 1997 No. 8. 75-97.

나승일(1987)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영임(2003) 남·여 중학생 직업관 및 진로의식 비교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찬주(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와 비행경험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인섭(1982) 자아개념 진단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송현순·정성봉(1998) 진로성숙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실과교육연구. VOL 4 No. 1. 123-142.

양용운(1998) 자기충족적 기대, 자아개념 및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학·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 10 No. 1.167-189.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직업 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준엽(1995) 심리적 독립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39-259.

유영주(2001) 가족관계학. 서울: 학지사

장석민(1990)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성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편(2000). 직업심리 및 상담. 서울: 학지사.

Armsden. GC, Greenberg M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3.

Crites J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Crites JO(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 adolescence. Inquiry Series Monograph No.2, Washington, D. C.: APGA.
- Eri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uidano VF(1987) Complexity of the self: A developmental approach to psychopathology and therapy. New York: Guilford.
- Hoffman J(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JL,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I am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91-106). New York: Springer-Verlag.
- Kenny ME(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2, 399-403.
- Luzzo DA(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94-199.
- Osipow SH, Fitzgerald LF(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Super D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Super D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Counseling Psychologist, 1, 19- 23.
- Super DE, Forrest DJ(1972)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Preliminary Manual for research and field trial.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 19-23.
- Taylor KM, Betz N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olbert E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